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등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 속 하락**
daily range 예상: 1,425~1,440원

■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크게 완화되었음. 이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위험회피 심리가 진정됨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엔화 강세가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하단이 지지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

■ **전일 동향** : 3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7.5원 오른 1,435.5원 마감 장 초반, 일본 당국의 개입 추정 영향에 엔화 가치 반등, 이에 달러 약세 나타나자 1,420원대에서 등락. 이후 저가 매수세와 엔화 강세 되돌림으로 1,440원선까지 반등했으나, 국내 증시 외인 순매수에 1,424.0원으로 하락해 주간 거래를 마침. 야간장에서는 미-이란 갈등 격화 우려에 1,430원대 중반으로 재차 반등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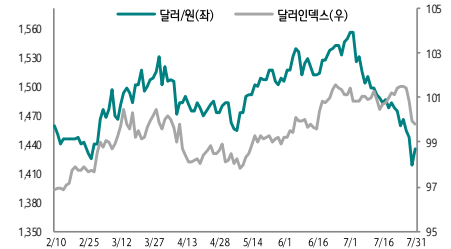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에 힘입어 강달러 나타나기도 했으나, 일본 당국의 엔화 절상 의지와 그에 따른 엔화 강세에 약세로 전환해 마감
- **(유로-달러)** 유로존의 7월 CPI가 이전치를 웃돌면서 ECB 추가 긴축 경계감이 유입되었으나, 중등발 위험회피 심리에 오히려 다소 되돌리며 강보합세를 기록
- **(달러-엔)** 미국과 일본이 엔저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시장 경계감이 고조되자, 엔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157엔대까지 급락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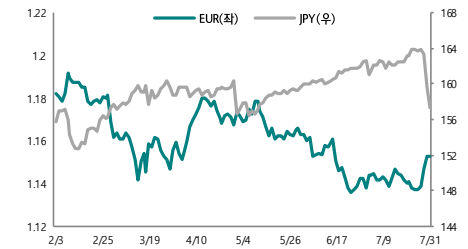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향방과 중등 리스크, 미 고용지표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우선, 지난주 일본 당국이 6~7조엔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 재무부의 공조 개입 가능성도 관측된 상황. 이러한 미-일 당국의 강력한 엔저 방어 의지는 당분간 엔화 강세를 지지하며 상대적으로 강달러 흐름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한편,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예고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공습 중단을 발표했음. 일단 양국 간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등 정세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어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재부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 후반부에는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 최근 FOMC에서 연준 내부의 매파적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 만큼,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날 경우 연준 긴축 경계감이 강화되며 강달러를 자극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금주 역시 대외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원화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를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24.2	1,444.8	1,423.9	1,442.9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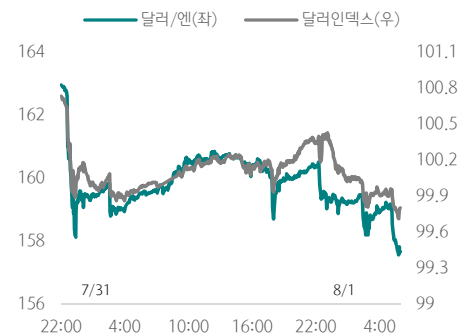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29	157.38	6.7526
전일대비	+0.0003	-2.16	+0.0051
재정환율	1,659.02	914.36	213.09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3:00	미국 7월 ISM 제조업 PMI	53.9	53.3
	미국 7월 ISM 구매물가지수	71.0	73.0

최근 엔화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